

내포지역의

# 역사문화 · 관광자원과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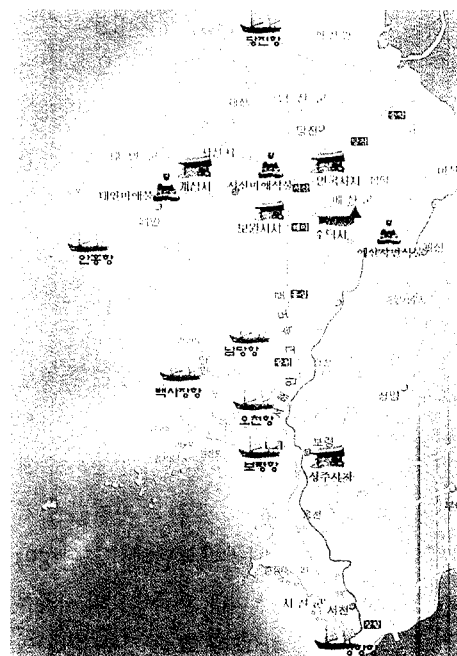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

## 1. 머리말

최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지구화와 기술혁신은 산업사회의 생산구조 전환과 함께 사회-경제체제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경제의 지구화시대에는 자본 · 기술 · 노동 등 주요한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공간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장소지향적 자원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발전은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 산업성장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이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 등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보유 여부가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와 지역이 쇠퇴하기도 하고,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새로운 도시와 지역들이 경제발전의 선도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선도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들은 정보와 지식의 창출과 주요한 결절지



로서의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역사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포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포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관광자원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펴보고, 이들 문화·관광자원을 지역발전에 연계 활용토록 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관광산업의 증대와 관광행태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행태 하에서 문화관광자원의 의의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내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유형화하여 밝혀 개발잠재력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내포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인자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2. 관광산업의 성장과 관광행태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등에 따라 관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세계여행 및 관광위원회(WTTC)에 따르면, 관광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관광산업의 연간생산액은 약 3조 5천억불로 세계 GDP의 11.7%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은 8.2%, 자본투자는 11.3%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세계 관광산업의 증대와 함께 국제관광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관광객은 1990년 4억 5,820만인에서 1998년 6억 3,510만인으로 약 1억 8000만인 증가하였고, 연간 국제관광수입은 2,680억불에서 4,390억불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세계 국제관광산업은 소득증대,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관광객의 수요도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억인, 그리고

2020년에는 15억 6천인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관광객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객수는 1998년 세계 국제관광객의 13.6%인 8,660만인에서, 2010년에는 19.4%인 1억 9,520만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관광산업수요의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WTTC의 추계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총생산은 약 260억불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은 115만인으로 전체고용의 5.7%, 자본투자비중은 8%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관광산업비중은 생산 측면에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높으며, 고용측면에서 이들 선도산업 부문의 비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다. 이는 그동안 국민국내 관광과 외래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 국내관광의 경우, 연간관광객수는 1994년 2억 6,000만인에서 1997년에는 3억 4,400만인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

1) WTTC, Travel & tourism's Economic Impact, March 1999 (<http://www.wttc.org>)



다.<sup>2)</sup> 한편 외국인 관광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992년 323만인에서 1998년 425만인으로 증가하였고, 관광외화수입은 32억 7,200만불에서 58억불로 증가하였다.

향후 관광산업수요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자동차 보급증대 및 국내 고속간선교통망의 확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민 국내관광객은 2002년 연간 약 3억인/일 수준에서 2010년 5억

8,200만인/일으로 약 90%정도 증가하고, 국제관광수요도 2010년까지 약 50%의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따라 관광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성장산업으로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sup>3)</sup>

이와같은 관광수요의 양적 증대와 함께 관광수요는 질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여행경험의 축적, 가치관의 다원화에 따라 관광행태는 다원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관광에서는 해수욕 등 계절형 관광, 단

순경관탐방형의 단체관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체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관광, 생태관광, 모험·체험관광 등 특정전문분야에 대한 개성적인 관광행태(special interest tourism:S.I.T.)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지적 호기심의 충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가족과 소규모의 휴양관광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국민국내관광 활동실태를 보면, 숙박여행의 경우 자연명승 및 풍경관광이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오락 18.6%, 수영·해수욕 11.9%, 고적·사적지·박물관

2) 관광객 수는 그동안 IMF 경제침체로 1999년 2억 7,300만인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김덕기(2001), "내포지역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표적시장별 마케팅 전략,"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자료집), 157-184면.

9.1%, 등산·하이킹·캠핑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1996년과 비교하면, 자연명승 및 풍경관광 등 단순경관탐방이 47.7%에서 30.8%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이 2.8%에서 9.1%로 크게 증가하였다.<sup>4)</sup> 이와같이 관광행태가 기존의 단순경관탐방 위주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특정전문분야 및 문화지향적인 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관광객의 70% 이상이 주말 레저관광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트래킹, 승마, 산악자전거 등 체험관광과 건축·예술 및 문화재 감상 등 문화관광활동에 치중하고 있다.<sup>5)</sup>

이에따라 새로운 관광수요 및 관광행태의 변화에 부응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권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 역사, 동질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등 문화유적지역을

정비하여 지역문화·관광기반을 조성토록 제시한 바 있다. 내포지역은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여 온 지역으로서, 최근의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관광행태와 관련하여 답사 및 체험관광 등 특정목적관광의 대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3.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실태와 잠재력

#### 1) 관광자원의 개념

관광이란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이란 광의로는 통근·통학 등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여행을 의미한다. 협의의 관광은 여행거리가 최소 50마일이나 100마일이 되거나 숙박이 포함된 여행(over night travel) 또는 휴가, 여가 및 유흥을 위한 여행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을 광의로 해석하여 업무와 위락여행(pleasure travel)을 모두 포함하며, 그런 의미에서 관광(tourism)과 여

행(travel)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광의 포괄적인 의미를 Mathieson과 Wall(1982)의 정의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관광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터와 주거의 범위 밖의 목적지로의 임시적 이동과 그곳에서의 활동 및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을 의미한다.<sup>6)</sup>

관광이란 이를 제공하는 지역입장에서 보면 외부지역 사람이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이란 지역이 지닌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교통, 숙박, 상가 등 일상적 생활환경에서부터 관광유흥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주민의 생활관습 및 태도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협의의 관광자원이란 “외부지역 사람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유인요소로써 지역이 지닌 유·무형 자원”을 의미한다.

#### 2)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내포지역은 경주, 부여, 공주 등과

4) 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00, 1999년도 한국관광연감, 362-363면.

5) 김용웅·차미숙(2001), 유럽의 지역개발 성공사례와 동향, 국토연구원.

6) Gunn, Clare A.(1988) Tourism Planning, Taylor and Francis.

같이 한가지의 성격으로 규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내포지역은 가시적인 거대한 상징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문분야 또는 특수목적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역사 문화적인 전통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내포지역은 지형적·지리적 특성상 육로교통과의 단절 및 임진·병자호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역사문화 및 전통적인 생활문화자원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sup>7)</sup>

내포지역이 지닌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포지역에는 우리나라 전래 불교문화에 접할 수 있는 희귀한 초기 백제불교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백제불교문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 마애불, 서산 마애삼존석불,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등 초기 백제불교문화자원이 내포지역내에 독점적으로 발견·분포되어 있다. 이들 불교문화자원은 백제시대 외래문화와 불교의 전래라는 종교역사 차원 뿐만아니라

조각과 회화적인 특징을 갖춘 불교미술사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포지역에는 백제시대 건설되고 아직도 고려시대 목조건축양식과 건물이 남아 있는 고찰인 수덕사와 근대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스님이 거처하셨던 개심사와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원사지 등이 있어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요 순례지가 되고 있다. 수덕사는 경허 성우선사의 고족 제자인 만공 월면과 여성운동가로 이름을 날린 일엽스님의 자취가 남아있어 일반인에게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내포지역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사지, 문수사, 일락사, 간월암, 부석사, 용봉사, 광경사지 등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내포지역은 해안지역에 입지하여 외국 선진문물이 수용되는 창구역할과 동시에 외국세력의 침투가 이어지는 통로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관방유적이 많이 잔존해 있으며, 조운·조창 등 연안운송

유적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군사적 요충지인 홍주읍성과 해미읍성, 그리고 연안방어를 위한 안흥진성, 소근포진성, 백화산성 등 많은 산성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내포지역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임존성, 백제부흥을 위해 파견된 일본 원정군의 전몰지로 추정되는 막무덤 등이 있어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일고대사 교류연구 측면에서 일본의 민간연구모임회는 백제부흥운동지역 답사를 통하여 부흥운동 당시의 일본원군에 대한 연



우강 솔피마을

7) 내포지역내 지정문화재는 총 214점으로 전국의 2.6%, 충남전체의 27.5%를 차지한다. 이들 지정문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교유적자원이 68점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3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인물유적자원이 42점으로 19.6% 등 불교와 인물관련 유적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를 추진하고 있어 내포지역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연구차원에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의 해안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삼남지방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로였다. 즉 충청도 이남의 세곡을 중앙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령 앞바다에서 태안 안흥량, 태안 만대, 당진 난지도 서쪽을 경유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굴포운하, 백사수도 등 조운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특히 내포의 삼교천 하류는 충청도의 세곡이 집결되는 곳으로써 여러 개의 조창이 있었으며, 공세꽃조창은 조선전기 규모가 가장 큰 조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내포지역내관방유적자원, 백제부흥유적자원, 조운·조창 등에 관련된 유적은 특수전문분야의 관광수요 차원에서 매우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포지역은 천주교, 동학관련 유적 등 한국근대사와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내포지역은 내포교회라 불릴 정도로 천주교가 활발하게 전래된 전교지역이자 순교지역으로서, 평양·강화도와 함께 천주교의 국내 3대 전교지역으로 유명하다. 내포지역은

울곡 이이-(송익필) (성리학)

사계 김장생 (주자예학)

우암 송시열 (기호학과)

수암 권상하

江門八學士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병계 윤봉구, 봉암 채지홍, 화암 이이근, 관봉 현상벽, 매봉 최징후, 추담 성만징)

남당 한원진

(人物性異論)

호론

사변학과, 소중화론, 춘추대의 중시

노론의 정론

위정척사파

화서 이항로(벽이단론, 개항반대),

면암 최익현, 유익현, 양현수

의병운동(홍주의병, 독립운동)

이 설, 김복한, 임한주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외암 이간

(人物性同論)

낙론

역외춘추론, 物性에 관심증대(象數學, 經濟之學 등 대상세계에 관한 학문발전

증대) : 낙향인사 중심

북학과(실학)

담헌 홍대용(지전설), 연암 박지원

(이용후생설), 대곡 김석문(상수학),

미호 김원행, 황윤석(상수학 연구),

추사 김정희

개화파, 천주교

강위, 오경석 등 개화지식인,

이존창, 김대건신부, 이가환, 황석영

계몽주의

심훈

애국충절 및 충의사상

(내포문화권의 사상적 본질형성)

해운교통상의 지정학적 특성상 외

〈그림 1〉 내포지역의 학문·사상계보와 인물

래종교인 천주교를 쉽게 흡수하고,<sup>8)</sup> 안중·공세리·예산·합덕·공주의 경로를 통하여 국내 여타지역으로 급격하게 전파하였다. 이에따라 내포지역 내에는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출

생지인 솔피마을,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이가환, 황석영 등을 비롯하여 전교활동의 중심지였던 합덕본당,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해미읍성, 그리고 천주교 교우촌, 순교지 등 천주교 전래

관련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어 천주교 성지순례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내포지역에는 박인호, 박덕철, 손병희, 박용태 등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이 활

〈표 1〉 내포지역 시군별·유형별 주요 민속·무형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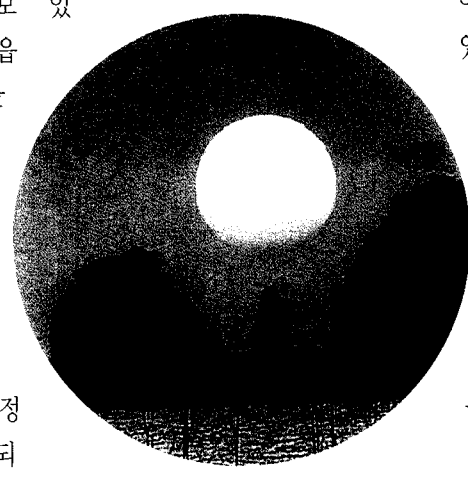
지 역	민속신앙	민속놀이	민속악	민속무용	민속공예	민속음식
서산시	간월도 굴부르기제, 야당리 홍수매기, 창리 영신제	-	서산벚가리개 놀이(농악)	박첨지놀이, 승무	-	
홍성군	수룡동마을 당제, 독배마을 당제, 원동 서낭제	용대기놀이	결성농요	-	지승제조, 용기장	
예산군	갈신리 장승제, 꺾곡리 산신제, 천방산 하록산신제	덕산보부상놀이	-	-	소목장	
당진군	안섬풍어 당굿놀이, 용신당제, 칠월칠석풍년제	기지사 줄다리기	-	-	-	면천 두견주
태안군	황도봉기풍어제, 파도리 산신제, 황도리 당제	벚가리대 놀이(머슴의 날), 조개부르기제놀이	-	-	태안 설위설경	
보령시	등바루놀이, 등불씨기 놀이, 전황장군제, 효자도당제, 고대도 당제	-	-	-	보령 남포벼루 제작	
아산시	농기싸움 놀이	아산 줄다리기, 아산 장치기 놀이	-	-	-	아산 연엽주

자료 : 오양렬(2001), “내포지역내 무형문화 및 전통민속자원의 특성과 보존방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충청남도·국토연구원.

8) 천주교의 전파루트를 보면, 의주 변문을 통하는 조선교회의 비밀연락로, 성직자 잠입의 서북 관서를 통하는 비밀통로가 위험해지자 새로운 비밀 통로로 '내포지방 서해루트'가 김대건 신부에 의해 개척되어 내포지방이 한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 중부해안으로 이어지는 서해루트였다. 이 루트가 예수회 동양전도의 거점이었던 마카오를 통하여 조선으로 숨어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2000), 내포지역과 한국천주교회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

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894년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합덕 성동산성, 당진을 구룡리 승전목, 당진 송악면 송악산 등 전적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한말 대표적인 의병운동이었던 홍주 의병이 동학운동으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지역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내포문화는 다른 한편으로 의문화권(義文化圈)이라 불리어질 정도로<sup>9)</sup> 충의·충절인물의 다수 배출되었으며, 아울러 조선후기 사상사를 주도한 인물관련 유적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내포지역에는 강직한 충정과 충열, 애국지사가 많이 배출되어 생가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충의·충절인물은 고려말 최영장군을 비롯하여 조선조 성삼문, 근세에 들어서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옥파 이종일, 심훈 등이 있어 청소년의 정신교육과 학습장으로써 역사문화 및 민족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답사관광의 중심지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에는 최치원, 김삿갓, 토정 이지함, 추사 김정호 등 문화인물 관련유적자원 등이 산재해



당진 왜목마을

어 문화답사지로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학문 및 사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내포지역의 학문적 사상은 기호학과 계통으로 율곡·(송익필)→사계 김장생→우암 송시열→수암 권상하→강문 팔학사로 이어지는 학맥을 유지하여 왔으며, 인물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 인물성동이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물성동이론(또는 湖落論爭)은 사회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논쟁으로 조선후기 수도작의 확대라는 농

〈표 2〉 내포지역을 대표할 만한 향토역사·문화자원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역사·유적자원	임존성 (17.8%)	홍주읍성 (13.0%)	서산읍성 (9.5%)
인물자원	김정희 (24.9%)	윤봉길 (23.3%)	김좌진 (15.8%)
불교자원	서산마애삼존불 (26.8%)	수덕사 (26.4%)	개심사 (11.1%)
유교·동학자원	서산보원사지 (21.0%)	남당한원진 (19.0%)	승전목 (18.5%)
천주교자원	해미읍성 (33.2%)	솔뫼마을 (28.7%)	갈매못 (13.0%)
기타자원	남연군묘 (19.3%)	기지사줄다리기 (16.7%)	황도봉기풍어제 (13.6%)

9) 충남은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으로 포괄되며, 내포문화권은 義文化圈, 금강문화권은 禮文化圈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업변화와 상업발전, 신분제 논란을 반영한 철학적 논쟁으로서,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 사이에서 촉발되었던 대논쟁이었다. 남당 한원진을 중심으로 하는 호론(湖論)은 춘추대의를 위하여 청나라를 공격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후일 노론의 정론으로 위정척사, 개항반대 및 의병활동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반면, 낙론(落論)은 외암 외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대개 낙향하여 살았으므로 낙학, 낙론이라 칭하며, 청은 여전히 중화에 속한다는 역외춘추론을 주장하며 상수학, 경제지학 등 대상세계에 관한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추후에 답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필두로 하는 북학과와 실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화파, 천주교, 계몽주의가 내포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내포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외침이나 천재 등 재해의 영향이 적어 전통민속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무형의 민속문화자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내포지역은 반농·반어의 자급자족적 생활문화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결성농요, 황도봉기풍어제, 안섬풍어 당굿놀이, 간월도 굴부르기제 등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풍

어제와 당제, 산신제 등 마을 차원의 향토민속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그리고 내포지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묘, 남원군 묘, 손석우 묘 등 풍수지리 관련 전통자원과 선돌, 고인돌 등 선사문화자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은 이와같은 지역향토 역사문화자원을 보전 활용하려는 자생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향토사학자 및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고건축박물관, 인장박물관, 민족문화음악원, 삼종효 연수원, 해변시인학교, 민속박물관(건설추진중), 전통옹기 실습행사 등이 향토역사와 문화의 보전과 전수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민속문화자원의 관광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포지역은 지형상 농경과 어로를 겸한 생활문화를 보유한 지역인 동시에 차령산맥 이북의 가야산 주변 지역으로 해안의 교류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부상 유적자원은 내포지역의 자립적이고 합리적인 특질을 드러내는 유적자원으로 볼 수 있다. 보부상은 장시를 무대로 생산자와 객주·여객,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경제를 담당해 온 전문적인 장돌림 상인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과 규율을 갖추고 전통적인 5일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다. 현재 보부상 조직은 서천을 중심으로 보부상, 예덕상무사를 중심으로 한 보부상이 잔존하고 있고, 예산·홍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덕상무사 등 보부상 관련유물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향토 역사문화자원 외에도 내포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삽교호, 예당저수지, 안면도 관광지, 덕산온천, 철새도래지 등 풍부한 자연경관자원과 해산물 중심의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가족휴양 및 주말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 ■ 내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전문가 의견

내포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해당지역내 공무원, 교사, 향토사학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sup>10)</sup> 내포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이 전국적 차원에서 상대적인 우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3%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 독특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포지역내 어떠한

〈표 3〉 내포지역의 유형별 핵심역사문화·관광자원

구 분	선 정 자 원
역사문화자원	불 교 서산마애삼존불, 수덕사, 개심사, 보원사지, 가야사지,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용봉사, 고산사
	천 주 교 솔피성지, 홍성옥터, 해미읍성, 갈매못
	관방유적 해미읍성, 임존성, 홍주읍성
	전통가옥 수덕사 대웅전, 예산 정동호가옥, 홍성 조응식가옥, 홍성 엄찬 고택
	인물관련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의사, 백야 김좌진장군, 성삼문, 한용운 생가지
향토문화	남연군묘, 예덕상무사
자연경관자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호방조제(도비도휴양지), 덕산도립공원(온천), 삽교호 국민관광지, 예당저수지, 홍성온천, 도고온천, 남당항

〈표 4〉 내포지역내 개발권별 중점진흥지구와 개발방향

개발권	중점진흥지구	개발방향	핵심관광자원 및 명소	연계관광자원
가야산권	가야산 북부지구	역사문화 및 학습체험관광	서산마애삼존불, 해미읍성	한우목장, 개심사, 해미향교, 여숫골
	가야산 남부지구	문화·민속체험 및 보양관광	보부상유품(상무사), 덕산온천, 남연군묘	화전리사면석불, 남은들상여, 충의사, 삽교석조보살상, 한국고건축박물관
북부권	삽교호지구	도시근교위락 및 산업관광	삽교호국민관광지, 행담도, 솔피성지	구합덕성당, 필경사, 서해대교, 영인산휴양림
	도비도 (난지도)지구	해양휴양 및 생태체험관광	도비도휴양지	왜목마을, 난지도해수욕장, 의병충, 백제원군도착지
	안면도 국제관광지구	국제해양 휴양관광	안면도국제관광단지, 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안면도휴양림, 원산도, 모감주나무군락
해양권	안흥항지구	관광어항 및 특산물관광	안흥항	안흥성, 해수욕장
	간월도 생태지구	탐조 및 생태체험관광	간월도관광지	부석사, 전용일가옥, 간월도철새도래지, 간월암
	남당리지구	민속문화체험 지역특산관광	남당항	고산사, 한용운선생 생가지, 김좌진장군생가지, 결성농요전승회관
내륙권	예당저수지지구	역사학습체험 및 휴양관광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임존성	이성만형제호제비, 호양저수지, 면암 최익현 묘, 추사고택
	용봉·홍주지구	역사체험 및 가족휴양관광	홍성온천, 홍주관아, 용봉산	노은단, 홍주의사총, 용봉산 자연휴양림, 마애석불

관광문화자원이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외관광객에게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상품이나 관광자원으로는 해양경관자원(26.0%), 백제역사유적(25.4%), 민속문화(21.2%), 온천(13.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주요 표적대상으로는 휴양 및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가족(59.1%), 역사체험·학습 등 청소년(3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특정목적의 전문관광객(1.4%), 보양·건강을 추구하는 노인보양관광(1.4%)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내관광객에 대하여 내포지역의 핵심관광자원으로는 해양경관자원(27.6%), 내륙자연경관(23.3%), 충절·역사인물(18.6%), 백제역사유적(13.6%), 불교, 천주교 등 종교자원(7.6%), 전통민속(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내포지역을 대표할만한 향토역사 문화자원에 대하여 우선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임존성, 홍주읍성, 서산읍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인물자원으로는 추사 김정희, 윤봉길의사, 김좌진장군의 순으로, 불교자원으로는 서산마애

삼존불, 수덕사, 개심사의 순으로, 유교 및 동학자원으로는 서산보원사지, 남당 한원진, 승전목의 순으로, 천주교 자원으로는 해미읍성, 솔피마을 등으로 나타났다.

#### 4.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방향

내포지역은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아 개발이 등한시 되어왔던 전통적인 생활문화 및 백제불교, 백제부흥운동사, 보부상, 충의·충절인물 등 희귀한 역사적 전통 자원들을 풍부하고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내포지역을 「21세기형 학습·체험위주의 복합여가 문화지대」로 중점 육성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특질 및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포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대표적 특질은 보여지는 것, 즉 가시성 보다는 이해하고 음미하여야만 진정한 가치가 우리나라의 상징성과 문화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

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내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는 편의시설, 대규모 관광지 조성과 함께 내포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자원의 내용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서, 안내물 개발 및 전문안내인력의 확보와 활용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내포지역은 명소방문 및 탐방형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전문분야, 특정관심분야의 소규모 답사관광, 가족·개별관광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지역내 관광문화자원의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에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는 내포지역을 지역단위로 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연계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은 지형적 특성이거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전체를 북부권, 가야산권, 해양권, 내륙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부권은 삼교호, 도비도지구를 포함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수도권 근접의

10)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국토연구원(2001)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조사는 2000년 10월중순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역전문가 300명에게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50%의 응답율을 보였다.

도시근교위락 및 해양휴양관광에 중점  
토록 하고, 가야산권은 역사·문화·  
민속체험의 중심지로 개발토록 한다.  
해양권은 안면도국제관광, 안흥항지구  
등 해양 및 생태관광의 거점지대로 육  
성하고, 내륙권은 예당저수지 및 용  
봉·홍주지구를 중심으로 역사인물순  
례 등 역사체험과 가족·청소년 학습  
관광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한  
다.

둘째,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들은 거점화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

어 있다.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형성하  
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핵심적  
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관광문화자원을 보전·복  
원·관리하고, 교통망 및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핵심관광자원으로 불교문화,  
천주교순례지, 관방유적, 전통건축, 향  
토문화차원에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  
여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경관자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  
할 수 있다.<sup>11)</sup>

이와같은 핵심관광거점은 지역적 분  
포를 고려하여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중점진흥지역을 설정하여 관광문화시  
설의 정비, 교통망 및 편의시설을 집  
중·정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  
면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 북  
부지구, 덕산온천 중심의 가야산 남부  
지구, 삽교호지구, 안흥항지구, 도비도  
지구, 안면도 국제관광지구, 간월도지  
구, 예당저수지지구, 남당리지구, 용  
봉·홍주지구 등이 핵심관광자원과 연  
계를 위한 핵심거점으로 정비가 가능

〈표 5〉 내포지역의 특수목적 문화·관광상품 구상예시

테 마	주 제	관 광 자 원 예 시
내포인물탐방	충의·충절인물을 찾아	· 최영장군 생가, 성삼문 생가, 추사 김정희 고택, 만해 한용운 생가, 운봉길의사 생가, 김좌진 장군 생가, 옥파 이종일선생 생가, 심훈 필경사, 남당 한원진 등
내포불교문화탐방	불교유산의 보고 가야산탐방	· 서산마애삼존석불, 태안마애불, 수덕사, 보원사 등 백제불교미술 및 불교사찰 탐방
내포천주교 성지순례	천주교의 성지순례	· 솔피성지, 해미읍성, 갈매못, 해미 여숫골, 홍성옥터, 교우촌, 합덕성당 등
백제부흥운동지 답사	백제부흥운동사의 부활	· 임존성, 주류성, 승전목, 몽산성, 막무덤 등
내포 민속문화답사	보부상 발길을 따라 내포민속문화 재현	· 보부상 : 예덕상무사, 부상감의비, 홍도원, 웅암포, 수덕고개 등 · 풍수지리사상 : 남연군묘, 남은들상여, 손석우옹묘 등 · 전통민속문화 : 결성농요, 황도봉기풍어제, 안섬풍어제, 용대기놀이 등
내포특산물 관광	지역특산 먹거리를 찾아	· 대하, 꽃게, 실치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문화와 주변관광자원 연계관광
내포생태체험관광	갯벌, 조류 등 생태체험	· 갯벌, 조류, 식목 등 생태자원의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
내포문학탐방	내포관련 문학체험	· 내포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집필된 소설, 시를 통하여 내포지역의 문학이미지 부각 (심훈의 상록수기행, 이성만형제 우애비, 해변시인학교 등)
내포역사재현 및 학습체험탐방	내포역사 재현 및 학습체험	· 내포역사재현축제 : 중국사신영접 축제화, 백제부흥운동사 재현, 보부상놀이 재현 등 · 고건축박물관, 오가옹기, 인장박물관, 불교박물관 등 지역내 박물관 순례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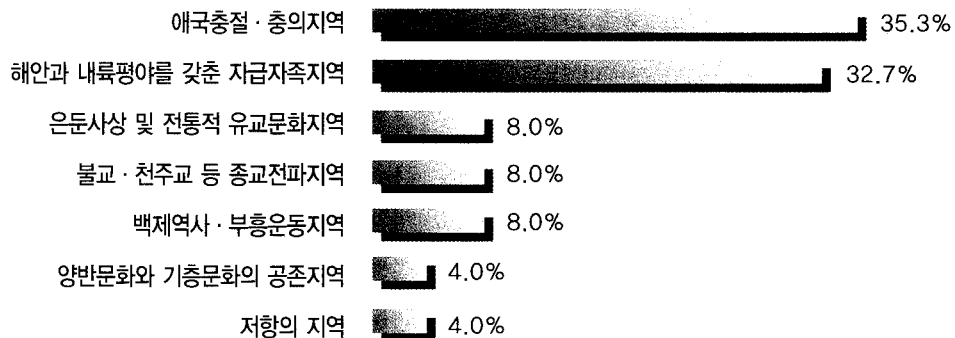
셋째, 내포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은 분야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의 특화 차원에서 다양한 테마형 관광루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특수목적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루트로 는 역사학습·체험관광루트, 문화체험 관광루트, 해양체험 및 휴가관광루트 등이 가능하며, 특히 충의·충절을 대표하는 내포역사인물(생가지)탐방루트, 내포불교문화 탐방루트, 천주교 성지 순례, 백제부흥운동 답사 등 보다 세분화된 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루트란 관광상품으로서 관광답

사일정(itineraries)을 의미한다. 관광루트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연계교통망,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등 인프라와 공공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루트의 개발은 내포지역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여행업자(inbound agents)와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내포지역의 관광루트와 상품개발은 표적시장을 차별화하여 국제관광수요를 위하여는 해양관광, 백제역사유적, 민속문화자원 중심의 관광루트와 상품을, 그리고 국내관광수요를 위하여는 여

가·휴양중심의 가족관광, 역사체험과 교육목적의 청소년대상 관광상품 개발에 치중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내포지역은 풍부한 해산물 등 지역특산물, 독특한 지역향토문화행사 와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경우 관광문화자원과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특산물로는 서산 어리굴젓, 광천 새우젓, 태안 대하, 예산 더덕 등이 있고, 지역향토축제는 계절별로 4월에는 예산의 매현문화제, 온양아산문화제, 여름에는 홍성의 만해제, 태안의 안면도 예술 축제 및 보령의 바닷길축제, 가을에는



〈그림 2〉 내포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지역이미지)

11) 핵심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선정과정은 충청남도 · 국토연구원(2001), 170-172면 참조.

서산문화제, 홍주문화제, 및 예산 추사문화제 등이 있다. 이들 축제를 내포지역의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가야산 무공해 산채채집, 서해안 바지락 채집, 해미읍성 역사체험, 불교생활체험 등 지역특산물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섯째, 지역관광산업의 소프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와 관광객 유인력을 높이려면 지역내 관광자원과 시설개선, 관광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에대한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지역내 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관광종사원의 전문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강화, 여행사·음식·숙박·유흥업소 등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수준,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내포지역의 관광자원, 관광상품, 음식·숙박시설, 교통정보 및 예약서비스 공급망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노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체, 휴양관광업체, 여행안내

업체, 교통운수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포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개발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원이나 경관의 훼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이 없이 전승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전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더욱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망실과 훼손우려가 특히나 높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실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발굴·연구와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관광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자원의 훼손과 망실과 이로 인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지역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 내포지역의 개발방향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역전문가 의견

충청권 지역전문가의 80.7%는 내포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문화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나, 대표적 문화적 속성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5.3%는 내포지역을 애국·충의·충절지역으로, 32.7%는 자급자족의 향토문화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은둔사상 및 전통적 유교문화지역, 불교·천주교 등 종교전파지역, 백제역사부흥운동지역 등 역사문화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포지역이 다양한 역사문화적 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내포지역을 개발할 경우, 내포지역 개발의 특성화 방향에 대하여 조사대상 지역전문가의 약 49%가 전통향토역사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경관 생태지역(27.0%) 등으로 응답함으로써, 내포지역은 지역경관이 어우러진 전통향토역사문화지역으로 상징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포지역의 관광개발 측면에서 내포지역 발전에 가장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서는 관광위락 휴

양시설기반의 취약(30.1%), 지역의 독자적인 관광이미지 확립미흡(26.0%), 지역내 관광지와 시설간의 연계성 취약(25.4%), 숙박, 음식 등 관광지원시설 및 기반취약(7.5%)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맺는말

내포지역은 자급자족의 서민문화와 조선 후기 사상사를 주도한 전통문화·사상자원으로서 충의·충절의 역사인물자원과 백제부흥운동사, 보부상 유적 등 희귀한 역사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교 및 천주교 등 외래종교 전래지역으로서 마애불, 사찰, 천주교 성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이와함께 내포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안과 내륙평야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높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보유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내포지역은 그동안 내륙과의 지형적 단절성, 교통접근성의 미흡으로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내포지역과 지역이 지닌 향토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관광·여가패턴이 단순경

관탐방형에서 가족휴양과 역사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관광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내포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내포지역에 맞는 독특한 개발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그동안 방치되어 온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전·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상 전문 및 특수목적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문화관광지대로의 육성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대단위 관광시설이나 관광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철저한 보전과 정비, 소단위 관광에 적합한 내실있는 관광기반시설의 정비에 치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포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특성은 가시성 보다는 상징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특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테마관광루트 등 관광문화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이나 상품의 개발 못지 않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진흥(promotion)과 마케팅(marketing)이다. 관광진흥과 마케팅은 창의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관광진흥전담기구 또는 민간전문기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관광진흥과 마케팅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전문가 육성, 관광진흥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내포지역내 자치단체의 협력체 구성 등 다양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논단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지역 개발 / 김정연·전영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 한무호

당진항의 명칭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 / 안기용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에 대한 기초연구 / 송두범